

# 『馬氏文通』 ‘介字’, ‘連字’의 구분기준 분석\*

이소동\*\*

## <目次>

1. 서론
2. 『馬氏文通』 ‘介字’의 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3. 『馬氏文通』 ‘連字’의 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 (1) 提起連字
  - (2) 承接連字
  - (3) 轉接連字
  - (4) 推拓連字
4. 『馬氏文通』 ‘介字’, ‘連字’의 구분기준
5. 결론

## 1. 서론

『馬氏文通』은 중국어법학계에서 완성성과 계통성을 갖춘 중국 최초의 어법서로 공인되고 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만큼 이에 대한 공과 실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文通』<sup>1)</sup>은 그 이전 중국어에 대한 근대적인 연구가 전무했던 중국 본토에 현대 중국 언어학 연구의 신기원이라는 호평과 아울러 그 전반적인 체제에 있어 영어의 문법(grammar)에 대한 기계적인 모방이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다. 그 악평에 대해 조금이나마 변론하자면, 『文通』의 저자인 馬建忠은 어려서부터 과거준비를 위해 사서삼경 등의 고대중국어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외교관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1) 본문에서는 『馬氏文通』을 『文通』으로도 나타내고 양자를 혼용함을 미리 밝혀둔다.

으로서 영어와 프랑스어 등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구성이나 술어의 사용, 유형의 분류 등에 있어 서양의 모방이라는 혐의는 피할 수 없지만, 馬建忠은 중국어와 영어의 내용적, 형식적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인식에 따라 중국어의 언어 현상을 기술해 내고 있다. 즉 영어의 문법 틀에 중국어의 차별적 어법 특징을 비교, 대조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풍부한 예시와 함께 기술되고 있는 馬建忠의 상세한 설명은 현재까지도 중국어 교수자나 연구자들이 『馬氏文通』을 필수 교과 항목 및 연구 참고 서적으로 삼기에 충분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馬氏文通』의 ‘介字’와 ‘連字’ 부분은 후대에 비교적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주로 介字와 連字의 기능과 범위에 있어 『文通』이 너무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로 『文通』에서 ‘之’자를 가장 대표적인 개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與’와 ‘以’ 등의 일부 접속사 용례도 介字에서 다루고 있는 점, 그리고 連字절에는 필요이상으로 많은 접속사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는 사실상 이들 허사를 개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접속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文通』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에 앞서, 馬建忠이 개사와 접속사의 기능과 그 범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사와 접속사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중국어에서 종속복문은 병렬복문과 함께 복문의 두 부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영어의 복문구조에서 비롯된 것인데, 馬建忠은 중국어에서 종속복문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상당히 부합하며, 개사와 접속사의 구분 기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馬氏文通』에서 분류하고 있는 개사와 접속사의 정확한 분류기준과 그 타당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상기한 관련 문제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중국어의 개사와 접속사의 명확한 구분기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文通』은 자체적으로 많은 오류를 안고 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된 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며, 介字와 連字의 분석에 대해 ‘以今律古’의 태도를 철저히 배제하

고 최대한 馬建忠의 시각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 2. 『馬氏文通』 '介字'의 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현대중국어의 관점에서 볼 때 개사는 동사에서 허화되어 단독으로 술어가 될 수 없으며 의미상 술어의 동작과 상관된 대상, 공구, 방법, 장소, 시간 등을 술어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sup>2)</sup> 따라서 개사는 뒤에 출현하는 명사와 개사구조를 이루어 뒤의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수식구조를 이룬다. 『文通』에서 개사의 범위는 이 보다 좀 더 넓은데, 개사의 정의를 보면,

허사로써 실사의 상관된 의미를 연결하는 것이 개사이다. 실사의 상관된 의미라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 두 위치를 제외한 곳이다. 서양문자, 예를 들어 희랍어나 라틴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두 곳 외에 4곳을 더 두어 실사의 상관된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니, 명사 대명사는 각각 6곳에 위치하는 것이다. (凡虛字用以連實字相關之義者, 曰介字。實字相關之義者, 有出乎主、賓兩次之外者。泰西文字, 若希臘拉丁, 於主、賓兩次之外, 更立四次, 以盡實字相關之情變, 故名代諸字各變六次)<sup>3)</sup>

위의 정의에 따르면,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와 목적어 외의 자리에 올 때 연결시켜주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주어, 목적어 외의 위치는 희랍어나 라틴어의 4곳, 즉 호격(vocative), 소유격(genitive), 여격(dative), 이격(ablative)<sup>4)</sup>에 해당되는데, 중국어의 구법위치에서 볼 때, 호격은 주어, 소유격은 관형어, 여격은 간접목적어 혹은 부사어, 이격은 방법, 수단,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해당된다. 즉 『文通』의 각도에서 볼 때, 개사는 관형어, 간접목적어, 부사어 위치에 충당되는 명사, 대명사 성분을 소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文通』의 서술에 따르면, 소개라기보다는 연결이라는 의미가 더 합당한데, 두 가지 핵심으로 요약

2) 朱德熙, 『語法講義』, 『朱德熙文集』1卷, 北京: 商務印書館, 1999, 198-199쪽.

3)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年), 246쪽.

4) 宋紹年, 『馬氏文通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203쪽.

하면, 만약 주어, 술어, 목적어를 연결주체라고 한다면, 연결객체의 구법위치는 관형어, 부사어<sup>5)</sup>가 되며, 연결객체에 충당되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로 정리 할 수 있다. 『文通』의 이러한 정의는 술어의 동작과 상관된 의미를 술어에 소개하는 현대중국어 개사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분명 그 초점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文通』에서 들고 있는 개사의 종류와 그 연결객체의 구법위치, 그리고 품사에 대해 살펴보자.

표1. 『馬氏文通』 介字의 종류와 그 연결객체의 구법위치 및 품사<sup>6)</sup>

	연결주체와 연결객체의 성분에 따른 유형	'介字組'의 구법위치					의미관계		
		주어	빈어	관·위	술어	기타	수식	병렬	기타
之	①介於兩名字之間(周公之事/今日之議)	○	○	○			관		
	②介於靜字、名字之間(聖哲之上/慈惠之師)	○	○	○			관		
	③-1介於代字、靜字 <sup>7)</sup> 之間 - '若斯之難例'				○		부		
	③-2介於代字、名字之間 - '此之政例'	○	○	○			관		
	④-1介於名字、動字之間 - 散動與名字之間 (記過之史/憂國之意)	○	○	○			관		
	④-2介於名字、動字之間 - 讀於起詞、坐動之間 (民之歸仁也猶水之就下也/大夫之許, 寡人之愿也)	○	○	○		부			주
	④-3介於名字、動字之間 - 止詞與動字之間 (吾斯之未能信/父母唯其疾之憂)				○				목
於	①用於比較(丹之治水也愈於禹)				○		부		
	②用附靜字(侈於德/多於聰)				○		부		
	③用附動字(學射於羿/出於幽谷)				○		부		
	④用附受動(努力者治於人)				○		부		
	⑤於+司詞位于所附之先 (於天下功最多)				○		부		

5) 중국어에서 간접목적어는 수여동사의 경우 개사가 불필요하며 대상을 유도하는 개사의 경우는 부사어에 편입시키기로 한다.  
 6) 介字별 세부 유형분류는 『馬氏文通讀本』(呂叔湘, 王海棻編)을 따르되, 연결주체와 객체의 품사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3번째 칸의 '介字組'는 연결주체와 연결객체, 그리고 개사를 통틀어 가리키며, 연결주체와 연결객체의 의미관계 중 수식관계에서 수식어가 관형어이면 '관', 부사어이면 '부'로 나타내기로 한다. 또한 표에서 '관·위'는 판단문의 서술어를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⑥与起詞有對待之意者, 介於字以系於其後 (君子之於天下也, 无适也, 无莫也)				○		부		
以	①司名字 (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		부		
	②司散動一言所向 (假道於虞以伐虢)				○		부		
	③聯兩靜字 (治世之音安以樂/亂世之音怨以怒)				○			술	
与	①聯名代諸字平列者 (子罕言利与命与仁)	○	○	○				주·빈·위	
	②聯与乎動字功用者 (諸君子皆与歡言)				○		부		
	③句法有兩者相較, 則以所与者爲比 ③-1 (制人与制於人, 豈可同日道哉?) ③-2 (与其過而廢之也, 宁過而立之)	○							○
					○		부		
爲	①司名字 (爲天下興利除害)				○		부		
	②司代字 (况於爲之強戰?)				○		부		
由	司名代諸字 (禮義由賢者出)				○		부		
用	以司是, '此', '何'爲常 (怨是用希)				○		부		
微	司名字 (微趙君, 凡爲丞相所賣)						'구'	부	
自	司名代諸字 (自天子以至庶人)				○		부		

『文通』의 介字 정의에 의하면, 관형어와 중심어 사이의 '之'자는 介字임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介字 '之'의 ②번 용례 '聖哲之上', '慈惠之師'와 ④-1의 '記過之史', '憂國之意'에서 연결 객체에 해당하는 성분이 비록 명사, 대명사가 아니지만 馬建忠의 설명대로 형용사, 동사(구)가 관형어의 위치에서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sup>8)</sup>고 볼 수 있다. 또한 ③-1의 '若斯之難'에서 馬建忠이 '若斯'를 대명사로 본 것<sup>9)</sup>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전체가 동사성수식구조로 부사어와 술어로 연결됨은 '之'의 介字 범위에 부합한다. ④-2와 ④-3은 흔히 '主之謂', '賓之述'구조라 불리는데, 馬建忠의 개사 정의에서 벗어나 보인다. ④-2의 "民之歸仁也猶水之就下也"에서 '民之歸仁也', '水之就下也'는 馬建忠의 기술대로 주어와 술어사이에 '之'를 삽입하여 전체가 '讀'가 되는 경우로 '之'는 여기서 단순한 '讀之記'<sup>10)</sup>에 해당되지, '歸仁', '就

7) 『馬氏文通』 원본에 名字라고 되어 있으나 『馬氏文通讀本』에 따라 馬建忠의 단순한 오류로 간주하여 靜字로 바로 잡는다.

8)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248쪽: "諸句動字用如名字, 而正次名字又皆隻字, 故以之字四之也"

9) 위의 책, 247쪽: "若斯者, 指示代字也"

下'가 중심어인 연결주체로, '民', '水'가 관형어인 연결객체로 보아 전체를 명사성 수식구조로 볼 수는 없다. 표1에서 보듯이, ④-2 유형의 介字組가 출현할 수 있는 구법위치는 주어, 목적어, 판단문의 술어 외에 가설이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 위치로 고대중국어의 '主之謂'구조와 완전히 동일하다. ④-3의 "吾斯之未能信", "父母唯其疾之憂"에서 '斯之未能信', '其疾之憂'는 고대한어의 전형적인 '賓之述'구조로, 馬建忠 역시 언급했지만, '讀'이 아닌 목적어 전치구조를 포함하는 '句'이다. 이는 연결객체의 위치가 관형어나 부사어가 아닌 목적어에 해당되어 『文通』의 개사 조건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馬建忠이 '之'자 절의 서두에서 '之'자를 포함하면 모두 '讀'이 된다<sup>11)</sup>는 주장과도 상호 모순적이다.

그러면 馬建忠은 왜 이러한 유형의 '之'자까지 介字로 간주했을까? '之'자 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분명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介字 '之'자의 모든 유형을 총괄해 볼 때, 『文通』의 介字 조건 가운데, 연결객체의 품사가 명사, 대명사라는 점이 공통요소인데, 이것만으로는 介字가 다른 품사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는 없다. 介字의 가장 큰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는 '소개', '연결'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④-3 유형의 소위 '賓之述' 구조에서 '之'는 빈어 도치에 따른 일종의 표지라 할 수 있는데, '述賓'의 정상 어순이 아닌 '賓述'의 비정상적인 어순이 분명히 드러나고 양자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④-2의 '主之謂' 구조에서도 '之'자는 '讀'이 되기 위한 강제 표지는 아니지만, 馬建忠이 언급했듯이, 주어와 술어를 '之'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어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sup>12)</sup> '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보건데, 두 유형에서의 '之'자는 비록 다른 유형에 비해 介字로서의 조건은 불충분하지만, 역할을 가지고 두 단어를 연결함에 있어서는 분명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介字 '於'는 현대중국어의 개사 의미와 다르지 않는데, 연결 주체는 모두 술어이

10) 편의를 위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文通』의 술어를 현대의 의미로 나타내면, '讀'은 문장에서 서술어위치(핵심위치)에 있지 않은 동사성성분을, '句'는 '讀'과 상대적으로 쓰여 서술어위치에 있는 동사성성분을 뜻한다. '讀之記'는 '讀'의 형식적 표지를 뜻하며, '散動', '坐動'은 각각 '讀'과 '句'에서의 동사를 뜻하며, '表詞'는 판단문의 술어와 상응한다.

11) 위의 책, 248쪽: "要之, 讀無之字者其常, 而有之字者, 必讀也, 非句也"

12) 위의 책, 248쪽: "讀於起詞, 坐動之間, 間以之字, 一若緩其辭氣者然"

며, 연결 객체는 ‘讀’을 포함한 명사, 대명사로 모두 부사어 위치에서 술어와 연결되고 있다.

개사 ‘以’는 그 범위가 조금 포괄적인데, 현대의 개사 의미에 적용하면 ①의 ‘司名字’ 유형만이 해당이 된다. 사실상, ②유형도 馬建忠의 분석대로라면 명사화된 ‘讀(散動)’이 술어를 수식하는 수식관계의 介字組를 이루고 있다. 즉 “假道於虞以伐虢”에서 ‘以伐虢’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앞 중심어인 “假道於虞”를 수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以’자 개사구조가 일반적으로 술어의 앞에서 수식하는 특징 등을 감안할 때, 당시의 언어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馬氏文通讀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만약 ‘以’자가 개사로 쓰였다면 그 목적어로 앞의 동사구가 되는 것<sup>13)</sup>이 더 합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이와 같은 ‘以’자 다음에 앞의 동사구를 가리키는 대명사 ‘之’가 생략되었거나 아예 접속사로 간주하기도 한다. ③유형 ‘聯兩靜字’는 현재 전형적인 접속사 용법이라 간주되지만, 『文通』에서는 “治世之音安以樂”, “亂世之音怨以怒”에서 ‘安以樂’, ‘怨以怒’와 같은 용례를 介字절에서 소개하고, ‘而’와 동일시하고 있다.<sup>14)</sup> ‘以’의 신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내린 介字의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連字절에 이와 같은 ‘而’자를 연자로 분명히 분류하고 있어 연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介字 ‘與’자의 유형① ‘聯名代諸字平列者’ 또한 현대에 접속사로 분류되고 있지만, 『文通』에서는 “子罕言利与命与仁”의 ‘利’, ‘命’, ‘仁’을 연결시키는 介字로 보고 있다. ③-1의 “制人与制於人, 豈可同日道哉?”와 같은 용례 역시 비록 의미상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연결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③-2 유형의 “与其過而廢之也, 宁過而立之”는 『文通』의 접속사 절에서 ‘與’, ‘與其’를 모두 접속사로 분류하고 있어 중복이 되고 있는데, 『文通』의 체제로 볼 때 접속사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여기서의 언급은 단순 오류라 보인다.

『文通』의 기타 介字 ‘爲’, ‘由’, ‘用’, ‘自’는 현대의 개사분류와 차이가 없으나, ‘微’

13) 呂叔相, 王海葵 편, 『馬氏文通讀本』, 上海, 上海世紀出版社, 2000년, 442쪽: “如果這裏的以字有司詞, 無宁說是以字前面的動字(及其止詞)”

14)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266쪽: “安, 樂兩靜字, 參以字以聯之, 猶安而樂也。”

자를 介字로 분류해 놓은 것은 특이하다. 『文通』에서 ‘微’자는 ‘司名字’라 하여 그 연결객체가 명사임을 밝혀 놓았고, 연결주체는 그 다음에 나오는 ‘句’가 된다. 馬建忠은 ‘微’자가 문두에 출현할 때 가설의 의미를 가진다<sup>15)</sup>고 하였으니, 반드시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후속구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微’자 뒤의 명사인 연결객체가 ‘微’자와 함께 뒤의 구를 수식하는 수식구조로 『文通』의 介字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연결주체가 주어나 술어, 목적어처럼 하나의 문장성분이 아닌 ‘句’인 점은 특이하며 이에 대해서는 뒤의 접속사와 함께 다루기로 한다.

### 3. 『馬氏文通』 ‘連字’의 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현대중국어에서 개사는 뒤의 개사목적어와 함께 부사어 혹은 보어로써 문장성분에 참여한다. 접속사는 이와 달리 단지 단어나 구, 절을 연결할 뿐, 전, 후항의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독립적 어법단위<sup>16)</sup>라고 할 수 있다. 『文通』에서는 접속사에 대해 전, 후항의 의미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허사로서 단어와 문장을 제기하고, 잇고, 밀고, 전환하는 것이 접속사이다. 그러므로 접속사 절에서 그 네 유형에 대해 분명히 밝혔듯이, 提起, 承接, 轉捩, 推展이다. 4종의 접속사 가운데 뜻을 가지지 않고 허사로만 사용되는 것은 드물고, 대개 동사나 부사를 빌려서 된다. (凡虛字用以提承推轉字句者曰連字。故連字界說, 明分四宗曰提起曰承接曰轉捩曰推展。四宗連字其不爲義而有當虛字之稱者蓋寡。蓋皆假借動字、狀字以爲用)<sup>17)</sup>

『文通』의 連字 정의에 의하면, 연결하는 단위는 단어와 문장이며, 접속사의 대부분이 무의미가 아닌 기존의 동사나 부사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連字가 마치 전, 후항의 의미와 관련된 관련어로서 작용하여 그 관련의미로 전, 후를 연결시켜

15)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275쪽: “微, 非也。介字, 惟司名字, 置句前則爲假設之辭”

16) 劉月華 등 저, 『實用現代漢語語法(수정본)』, 北京: 商務印書館, 2001, 315쪽.

17)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277쪽.

주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4종의 접속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1) 提起連字

『文通』에서는 ‘夫’, ‘今’, ‘且’, ‘蓋’의 4종을 提起連字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은 발어의 역할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이들 提起連字의 전후 연결성분과 의미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提起連字의 종류별 전후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유형	전후 연결성분	전후 의미관계
夫	冠句首, 皆以頂承上文, 重立新義	句与句(字/讀)	병렬
今	先叙述他事, 后用今說到本題	句与句	병렬
且	冠於句首, 緊頂上文, 再進一層也	句与句	병렬
蓋	上文所言諸事, 不可根究, ‘蓋’以疑之	句与句	병렬

‘夫’는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충당되는 인칭대명사 외에, 관형어 위치에 오는 지시대명사와 문두의 발어조사로 나누어진다. 『文通』에 의하면, 지시대명사와 발어사는 둘이 아닌데, 즉 접속사 ‘夫’는 발어뿐 아니라 지시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 하지만 지시의 ‘夫’는 그 뒤의 피수식어를 더욱 구체화, 개별화 시키는 반면 ‘凡’의 의미를 띠는 발어조사는 판단과 의론의 성격으로 피수식어를 일반화, 개괄화시킨다.<sup>18)</sup> 『文通』에서 들고 있는 “夫州吁, 阻兵而安忍(『左傳·隱公4』)”에서 ‘夫’는 지시대명사이며, “夫國君好仁, 天下無敵(『孟子·離婁上』)”에서 ‘夫’는 발어조사라 할 수 있다. 어째든 이러한 ‘夫’자가 문두에서(冠句首) 앞의 문장을 이어(頂承上文) 새로운 의미를 다시 나타내니(重立新義), 전, 후 문장의 연결 작용을 함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今’자는 본래 부사로,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논의되는 내용을 나타낸다<sup>19)</sup>는 『文通』의 지적은 분명 정확하다. ‘且’는 문중에서 ‘다만’, ‘오히려’, ‘장차’, ‘또한’의 의미로 쓰인 부사의 의미와 구별하여

18) 何樂土, 『古代漢語虛詞詞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6, 127쪽.

19)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277쪽: “是今字非以別時也, 乃以指見論之事也。”

문두에서(冠句首) 앞의 문장을 바로 받아(緊頂上文) 한 단계 더 나아감(再進一層)을 나타낸다. ‘게다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蓋’는 ‘대개’, ‘아마도’의 의미로 앞 문장에서 언급했던 일에 대해(上文所言諸事) 철저히 파헤치지 아니하고(不可根究) 대략 추측하는 말이다(蓋以疑之).

『文通』의 4종 提起連字는 모두 앞 문장의 의미와 연관작용을 가지고 있다. 비록 접속사가 하나의 문장 단위라는 현대중국어의 범위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모두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만큼 구법을 뛰어넘은 편장어법의 각도에서 보면 분명 의미가 있다.

## (2) 承接連字

『文通』의 承接連字는 일반적으로 ‘句’와‘句’, 또는 ‘讀’과 ‘句’의 중간에서 전자의 뜻을 이어서 후자에게 이어주는 역할로<sup>20)</sup> 순접의 의미를 가지며, 대표적인 접속사는 ‘而’와 ‘則’이다. ‘而’의 경우 순접뿐만 아니라 역접의 기능도 있지만, 承接連字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文通』에서는 이 두 가지 連字 외에도 많은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의 유형별 특징과 전후의 성분, 의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承接連字의 종류별 전후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유형	전후 연결성분	전후 의미관계
而	①過遞動字	讀与句/句与句	수식/병렬
	②過遞動靜諸字	讀与句/句与句	수식/병렬
	③過遞狀字与動靜諸字	讀与句	수식
	④過遞介字与動靜諸字	讀与句	수식
	⑤或前或后有名字者	讀与句/句与句	수식/병렬
則	①上下文事有相感者	讀与句	수식
	②上下文事有相因者	讀与句	수식
	③上下文事有异同者	句与句	병렬
或	事理可分舉者	讀與讀/句与句	병렬
既類	既、又、既…又	讀与句/句与句	수식/병렬

20) 위의 책, 281쪽: “承接連字者, 所以承接上下之文, 而蓋施於句讀之中。”

至於類	至於、至如、若夫、及至、及其、如其	句与句	병렬
非類	非…則、不…則	讀与句	수식
故類	故、以、爲	讀与句	수식
方類	方、當、甫、自、比、若、及、會	讀与句	수식

『文通』에서는 ‘而’가 연결하는 전후의 성분에 대해 동사와 형용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sup>21)</sup>, 여기서 동사, 형용사의 의미는 품사로써의 의미가 아닌 문장 성분으로써의 동사성성분, 즉 ‘句’나 ‘讀’을 의미하는 것이다. ‘而’는 承接連字인만큼 일반적으로 ‘句’와 ‘句’를 연결하여 병렬관계를 형성하지만 ‘讀’과 ‘句’를 연결하여 수식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 1) 淵深而魚生之, 山深而獸往之, 人富而仁義附焉(『史記·貨殖列傳』)
- 2) 始舍之, 圉圉焉, 少則洋洋焉, 悠然而逝(『孟子·萬章上』)
- 3) 以一儀而當漢中地, 臣請往如楚(『史記·屈原列傳』)
- 4) 其爪牙吏虎而冠(『史記·酷吏列傳』)

첫 번째 예문에서 ‘淵深’, ‘山深’, ‘人富’는 뒤의 구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어 전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식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두, 세 번째 예문의 ‘悠然’, ‘以一儀’는 각각 부사와 개사구조로써 뒤의 구와 수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문 4)의 “虎而冠”은 ‘而’자의 4번째 유형에 해당되는데, 명사로 전, 후구에 충당되고 있지만 동사화하여 문장성분상 모두 서술어의 병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文通』은 “主晉祀者, 非君而誰?”(『左傳·僖公二十四』)와 같은 ‘而’자 뒤에 대명사가 출현하는 용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의 ‘誰’는 ‘爲誰’가 되며, ‘而’자 전후로 어떤 성분이 오든 동사성성분과 같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은 분석은 현대의 중국어연구와 동일한 분석으로, 馬建忠의 견해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개사 ‘則’자 역시 전후로 ‘讀’이나 ‘句’가 출현하며 그 의미관계에 있어 ①유형의

21)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282쪽: “不知‘而’字不變之例, 唯用以爲動、靜諸字之過遞耳”

22)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290쪽: “代字單用爲上下截, 唯詢問代字則然, 爲其爲表詞也。是則而字之上下截, 無論字爲何類, 然必用如動靜字者然, 而后而字乃爲之過遞也。”

‘上下文事有相感者’는 일반적으로 전후구가 가정과 결과를, ②유형의 ‘上下文事有相因者’는 원인과 결과 혹은 일의 시간적 배경 등을 나타내는 수식구조로 되어 있다. ③유형의 ‘上下文事有異同者’는 현대의 해석과 조금 다른데, 그 첫 번째 종류를 보면, “滕君則誠賢君也(『孟子·滕文公上』)”과 같이 보통 “명사+則+명사/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則’자가 연결하는 전항은 ‘滕君’이 아니라 앞의 문장인데, 『文通』의 분석에 의하면, 앞의 문장에서滕君의 현군다운 자질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則’자로서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則’자 뒤의 명사나 동사는 ‘表詞’로 판단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보였다. 현대에는 이와 같은 ‘則’에 대해 부사로 보고 있으나 편장어법의 각도에서 『文通』의 분석은 분명 가치가 있으며 접속사의 전후에 ‘讀’이나 ‘句’가 출현함에는 변함이 없다.

‘或’자는, 주지하듯이, 선택(事理可分舉者)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명사나 대명사가 아닌 술어의 위치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讀’과 ‘句’ 등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

‘既’類는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는데, ‘既’자를 포함하는 부분은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23)</sup>

‘至於’類는 현대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개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文通』의 분석에 따르면 ‘至於’類 역시 그 앞의 문장과 의미관계가 발생하는데, 앞 문장의 내용이 이미 끝이 났으나 다음 문장에서 또 비슷한 종류를 언급할 때 ‘至於’로 연결한다<sup>24)</sup>고 하였다.

‘故’類에서 ‘故’는 전후의 의미관계상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며, ‘以’, ‘爲’의 바로 뒤에 오는 내용이 원인을 나타낸다. ‘以’, ‘爲’는 介字절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介字절에서 ‘以’는 수단, 방법 등을, ‘爲’는 목적 등을 나타내었는데,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方’類는 현대중국어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부사나 개사의 신분이지만 다른

23)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306쪽: “既所附者, 辭氣未完, 皆讀也, 故列連字, 不則何以異於狀字。”

24)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307쪽: “蓋上文辭氣已畢, 而上文又與前文相類, 故至’字后加以於’字者。”

품사를 빌려 접속사가 된다는 『文通』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로 후속구를 위한 일정한 연결작용을 하고 있다.

### (3) 轉振連字

‘轉振’이라는 의미는 ‘바꾸고 꺾는다’는 의미이다. 轉振連字는 바로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고대 중국어에서 ‘而’와 ‘然’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文通』에서는 ‘而’에 대해 앞의 承接連字에서 함께 언급하여 이 절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然’자와 그 외 몇몇 접속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轉振連字의 종류별 전후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유형	전후 연결성분	전후 의미관계
然	用以起句, 口雖然而勢已轉	句与句	병렬
乃	‘然後之解者’/‘於是之解者’	句与句	병렬
第類	第、但、獨、特、惟、顧	句与句	병렬

표3의 轉振連字는 모두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중 ‘然’자는 문두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으며, ‘然而’, ‘然則’, ‘然後’, ‘然且’ 등으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는 뒤에 나오는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진다. 즉 ‘然而’의 경우만이 轉振連字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모두 承接連字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乃’자는 『文通』에서 ‘然後’, ‘以後’의 의미를 가지는 ‘繼事之詞’와 ‘於是’의 의미를 가지는 ‘言故之詞’만이 접속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하다면 ‘乃’자는 承接連字에 편입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第類’는 현대중국어에서 모두 부사로 분류되는데, 『文通』에서는 앞의 문장 내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일이나 이치를 들어 완곡하게 전환시키고 있고, 모두 문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속사로 간주하고 있다.<sup>25)</sup>

25)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년), 314쪽: “五字意雖各別, 而前文不論, 唯舉一事一理輕輕掉轉者皆同。雖然經史中以爲狀字者居多。” 315쪽: “所引五字, 皆冒

## (4) 推拓連字

推拓連字는 앞의 내용을 한쪽으로 밀어제치고(推開) 다른 내용을 전개한다(展拓)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양보와 가설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文通』에서 ‘之’자와 아울러 ‘讀之記’라고 했듯이, 항상 ‘讀’과 연결된다<sup>26)</sup>는 점이다. 『文通』에서 열거해 놓은 推拓連字의 종류와 그 전후 연결성분, 의미관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4. 推拓連字의 종류별 전후연결성분 및 의미관계

	유형	전후 연결성분	전후 의미관계
縱類	縱、雖	讀與句	수식
如類	如、若、令、卽、果、誠、設、假、就、使	讀與句	수식
況類	猶(且、尙)…況、矧、與…寧(豈、孰若)、	讀與句	수식
抑類	抑、將、寧	讀與句	수식
非惟類	非惟、非獨	讀與句	수식

‘縱’, ‘雖’는 고대 중국어의 대표적인 양보구문을 연결하는 접속사이며, ‘如’類는 가정을 나타낸다. ‘況’類의 “與…寧” 유형은 介字절에 소개된 바 있는데, 전후의 연결성분 및 의미관계를 고려했을 때 連字에 분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文通』의 4종 連字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대의 중국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접속사에 비해 분명 그 범위가 넓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각종 관련어를 접속사로 분류한 점이다. 『文通』에서 태생부터 접속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기타 품사들이 자기들의 고유 어휘의미를 유지한 채 접속사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 고유 의미들이 전후구의 의미에 있어 조금의 관련성이 있으면 접속사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장의 단위를 넘어 편장으로 확대시킨 점이다. 『文通』은 고대중국어의 편장어법 연구에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다. 고대중국어는 현대중국어에 비해 더욱더 화제 중심의 언어이고, 이 화제는 종종 문장에서 벗어나 편장에서 다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文通』의 편장에 대한

句首, 此所以爲連字也。非然, 其不爲狀字者鮮矣。

26) 위의 책, 316쪽: “推拓連字要皆用以連讀而已”

접근과 인식은 고대중국어 연구에 분명 올바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文通』의 連字는 그 연결성분에 있어 '字', '讀', '句'가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字'가운데서 '名字', '代字'의 연결은 없으며 모두 '動字', '靜字'만이 해당이 된다. '字'와 '讀', '句'는 엄격히 말해서 그 단위가 다르다. 즉 '字'는 품사의 개념으로 문장을 벗어난 자기 고유의 신분이며, '讀'이나 '句'는 문장에서의 역할을 말한 것인데, '讀'은 동사구에, '句'는 절에 해당이 된다. '動字', '靜字'는 문장에 들어와 '讀'이 될 수도 있고 '句'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連字의 연결성분은 모두 '讀'과 '句'가 되거나 '句'와 '句'가 된다.

#### 4. 『馬氏文通』 '介字', '連字'의 구분기준

『文通』의 介字와 連字에 대한 연결성분과 의미관계를 통해 볼 때, 양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연결성분에 있어 명사성성분과 동사성성분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文通』 속에서 馬建忠이 介字와 連字를 대조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을 살펴보면:

모르긴 하지만, '而'자의 불변한 용법은 오직 동사와 형용사의 연결이라는 점인데, 이는 마치 '与', '及' 등의 字가 명사와 대명사를 잇는 것과 같다. (不知'而'字不變之例, 唯用以爲動、靜諸字之過遞耳, 是犹'与', '及'等字之用以聯名、代諸字也。27)

현대중국어에서는 '而'뿐 아니라 '與', '及' 모두 접속사이나 『文通』에서는 '而'를 접속사로 '與'와 '及'자를 개사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連字와 介字의 구분이 연결성분에 있어 동사, 형용사와 명사, 대명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래의 예시에 대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

“郁城에 이르렀을 때 선비는 불과 수천이었다.”에서 '比'는 '及'이다. '讀'

27) 위의 책, 282쪽.

을 이끄니 連字이다. 『禮記·祀義』에 “때에 맞춰 물건을 구비하다(比時具物)”에서 ‘比時’는 ‘及時’로 개사이다. (“比至郁城，士至者不過數千。”比，及也，用以領讀，則爲連字。若禮祀義云：“比時具物”。比時，及時也，則介字。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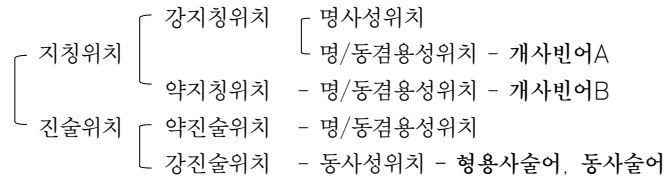
“比至郁城”에서 ‘比’는 連字이고 “比時”에서 ‘比’는 介字인데, 그 이유는 바로 전자의 연결성분은 동사성성분이며 후자는 명사성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比’자와 아울러 동일한 글자에 介字와 連字 용례를 모두 갖추고 있는 ‘以’자나 ‘爲’자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결성분이 명사성인지 동사성인지가 『文通』의 介字, 連字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宋紹年 역시 연결성분의 명사성과 동사성 외에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29)

『文通』에서 介字의 연결객체에 대한 성분을 보면 명사와 대명사외에 동사성성분도 있는데, 개사 ‘以’자의 용례 중에는 ‘司散動’의 유형도 있으며, 기타 개사의 연결객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連字절의 ‘而’자 유형 중에도 “或前或后有名字者”가 있듯이 連字의 앞 혹은 뒤에 명사성성분이 출현하는 용례도 빈번히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介字와 결합하는 동사성성분과 連字와 결합하는 명사성성분이 각각의 구법위치에서 지칭화와 진술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文通』의 介字, 連字의 구분 기준이 연결 성분의 품사자체에 있지 않고 충당되는 구법위치의 지칭과 진술정도에 있다는 말이 된다. 즉 介字의 연결객체는 지칭정도가 강한 위치에 충당되며, 連字의 연결성분은 진술정도가 강한 위치에 충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지칭과 진술정도에 따라 구법위치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30)

28) 위의 책, 311쪽.

29) 宋紹年, 『馬氏文通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269쪽.

30)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44쪽.



위의 도표는 각 문장성분의 모든 유형 24종에 대해 지칭정도와 진술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인데, 24종 가운데 본문의 토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두 종의 개사빈어와 형용사, 동사술어만을 나타내었다. 위의 도표에 의하면, 강지칭위치와 강진술위치에 각각 명사성성분과 동사성성분만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동결용성 위치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개사빈어를 A와 B로 양분한 이유는 『古代漢語知識教程』에서의 의견을 따른 것인데, '於', '以', '因', '由', '自', '從', '與', '及' 등 대부분이 명사성성분을 개사빈어로 가지는 개사를 한 유형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縱', '雖', '如', '若', '苟', '令', '則', '設', '假', '使' 등 기존 종속복구의 동사성성분을 연결대상으로 삼았던 접속사를 개사의 또 다른 유형으로 삼았다.<sup>31)</sup> 『文通』의 체제와 비교해 볼 때, 개사빈어A는 『文通』 介字의 연결객체와 상응하며, 개사빈어B는 '讀'과 '句'를 연결하는 連字에서 앞의 '讀'과 동일하다. 개사빈어A와 B에 명사성과 동사성성분이 모두 올 수 있지만 각각 그 지칭과 진술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해당성분 또한 다를 수 있다. 즉 강지칭위치에 속하는 개사빈어A에는 강지칭정도에 걸맞는 명사성성분이 주류가 되고 동사성성분이 비주류가 되므로, 동사성성분이 올 때는 그 위치에 상응하는 지칭화가 발생한다. 약지칭위치에 속하는 개사빈어B에는 지칭정도가 약하고 진술정도가 강한 동사성성분이 주류가 되고 명사성성분이 비주류가 되므로, 명사성성분이 오면 당연히 진술화가 발생하며 동사성성분이 올 때도 약하지만 지칭위치인 이유로 약한 정도의 지칭화가 발생한다. 推拓連字가 '讀之記'로 동사성성분이 '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馬氏文通』에서 介字와 連字는 연결 기능과 전후 의미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31) 張雙棣 등 저, 『古代漢語知識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년, 270쪽.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37쪽에서 재인용)

없어 보인다. 모두가 전후의 단어나 구를 연결하여 수식 혹은 병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단지 연결되는 전후 성분에 있어서의 차이인데, 『文通』에서는 이를 '名代諸字'와 '動靜諸字'의 대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에서 살펴본바, 품사의 대립에 따른 구분이 아닌 지칭과 진술정도의 강약에 따른 구법위치에 따른 차이로, 강지칭위치와 약지칭위치의 대립이 바로 그 구분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어는 문장성분과 품사 간에 일대일 대응이 아닌 어순에 따라 다대일 대응을 한다. 이와 달리 일대일 대응을 하는 영어의 문법을 토대로 삼았던 馬建忠이 강지칭위치에 있는 문장성분을 명사와 대명사로 약지칭과 강지칭위치에 있는 성분을 동사와 형용사로 표현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 복문은 일반적으로 병렬복문과 종속복문으로 나눈다. 『文通』에서는 종속복문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시간, 조건, 원인, 양보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절은 모두 '狀讀', 즉 '讀'으로 총당된 부사어로 분류하였다. 이 이후로 金兆梓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를 표하였는데, 그 중 宋紹年이 대표적이다.

중국어에서 동사성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의 5종 문장성분에 총당되어, 이러한 유형의 문장을 단문으로 인정한다면, 왜 동사성성분이 부사어에 총당되어, 이에 따라 종속복문을 단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我們既然承認漢語的謂詞性詞組可以充任狀語、謂語、賓語、定語、補語五種句法成分, 從而把上述類型的句子分析爲單句, 那麼, 爲什麼不能承認謂詞性成分也可以充任狀語, 從而把主從複句也分析爲單句呢?)<sup>32)</sup>

宋紹年은 위의 주장과 함께 『文通』에서 連字로 분류한 '雖', '如', '若', '以', '爲' 등을 개사로 분류하였다. 전후의 의미관계로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일부 접속사들이 개사와 달리 위치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즉 문두에 위치하여 뒤의 동사성성분과 함께 후속구를 수식해야 하지만 문두뿐만 아니라 문중에도 자유롭게 놓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이 구분되

32) 宋紹年, 『馬氏文通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83쪽.

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일반 개사빈어의 위치와 이들 연결성분의 위치에 대한 지칭과 진술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宋紹年의 주장대로 물론 일반개사빈어의 위치에 동사성성분도 올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위치는 강지칭위치로 명사성성분이 추가 되는 자리이다. 이와 비교해서 종속절의 위치는 소위 개사빈어 B로 동사성성분이 추가 되는 약지칭위치이다. 사실, 종속복문에서 종속절은 개사빈어와 병렬복문의 중간자적 특징을 지닌다. 즉 약지칭 혹은 약진술위치에 해당하는 종속절에서 왼쪽으로 강지칭의 자리에는 개사빈어가 위치하고 오른쪽의 강진술의 자리에는 (병렬)복문의 전, 후절이 위치한다.

(단문)개사빈어 ← 종속절 → (복문)전후절  
 [강지칭위치] - [약지칭/약진술위치] [강지칭위치]

이렇게 볼 때, 종속절의 독립여부에 대한 논의는 바로 종속절을 양자 중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구법 위치의 지칭과 진술성으로 인해 어느 한 극단에 귀속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속접속사를 개사로 간주한다면 위치의 유동성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힘들다. 차라리 복문 쪽으로 편입시켜서 다시 병렬복문과 차별을 두고 있는 현재의 체제가 좀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 5. 결론

『馬氏文通』는 서양의 문법을 모방한 중국인이 쓴 최초의 고대중국어 어법서이다. 비록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자체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영어의 형식적 모방에서 오는 분류와 분석의 불합리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말민초의 격동기를 살았고 태생이 언어학자가 아니었던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馬建忠은 외교관으로서 영어와 프랑스어 등의 서방 언어에 능통했고, 어려서부터 과거를 목표로 사서오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어와 이들 언어와의 차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文通』의 설명과 예시, 체제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文通』은 서양 문법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서양의 문법 틀 안에서 고대중국어의 특징을 잘 살린 어법서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馬氏文通』에서 소개하고 있는 介字, 連字는 현대의 분류와 다른데, 이는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文通』에 의하면, 介字와 連字 모두다 연결의 기능을 하며 그 분류기준은 하나인데, 介字는 명사성성분인 '명/대주자'를 連字는 동사성성분인 '동/정주자'를 연결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文通』 자체 내에서도 많은 예외를 드러내어 동사성성분을 연결하는 介字뿐만 아니라 명사성성분을 연결하는 連字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본문의 분석에 의하면 『文通』에서 介字의 연결객체는 구법위치에서 강지칭위치에, 連字의 전절은 약지칭위치 혹은 강진술위치에 놓인다. 강지칭위치는 명사성성분이 주가 되며 동사성성분이 충당될 때 지칭화가 발생한다. 약지칭위치 혹은 강진술위치에서는 동사성성분이 주가 되며 명사성성분이 충당될 때 진술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文通』에서의 介字, 連字의 구분기준은 품사의 관점이 아닌 구법위치에 있어서의 지칭과 진술정도가 된다. 이러한 기준은 현대한어에서 종속복문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쟁의에 참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雖', '如', '若' 등의 접속사를 포함한 종속절이 주절과 단순한 수식의미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종속절의 접속사를 개사로 분류하고 종속절을 부사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법위치의 지칭성과 진술성을 기준으로 삼고, 개사와 접속사의 발전 과정, 문장 안에서의 위치, 생략여부 등을 참고한다면 종속복문은 여전히 독립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 〈參考文獻〉

- 朱德熙, 『語法講義』, 『朱德熙文集』 1卷, 北京: 商務印書館, 1999年.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2年).  
 劉月華 등 저, 『實用現代漢語語法(수정본)』, 北京: 商務印書館, 2001年.

- 呂叔相, 王海葵편, 『馬氏文通讀本』, 上海, 上海世紀出版社, 2000年.  
宋紹年, 『馬氏文通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年.  
邵靄吉, 『馬氏文通句法理論研究』, 北京: 北京社會科學出版社, 2005年.  
何樂士, 『古代漢語虛詞詞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6年.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9年.  
張双棣 등 저, 『古代漢語知識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年.

#### 〈中文提要〉

馬氏文通里介字和連字的分類與現在不一樣。這是因為分類標準不同。根據文通的敘述, 介字和連字都起連接作用, 兩者之間的分類標準只有一個, 就是連接成分是名詞性還是謂詞性: 介字是連接名詞性成分的‘名代諸字’, 連字是連接謂詞性成分的‘動靜諸字’。但是, 從文通所舉的例子來看, 此標準不是萬能的, 文通里存在很多例外。據本文的分析, 文通介字和連字的分類標準不在於詞類的名詞性或者謂詞性, 而在於句法位置的指稱性和陳述性。據有關研究成果, 介字連接的成分處於強指稱位置, 連字連接的成分處於弱指稱位置或強陳述位置。強指稱位置上以名詞性成分為主, 如謂詞性成分充當此處就發生指稱化; 弱指稱位置或強陳述位置上以謂詞性成分為主, 如名詞性成分充當此處就發生陳述化。

關鍵詞: 馬氏文通, 介字, 連字, 指稱, 陳述

이 논문은 2016년 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